

“차의 남자 vs 盧의 남자”... 서갑원, 1차 투표서 과반 넘겨

<이정현>

선호투표제 첫 도입 새정치 순천·곡성 경선 현장 가보니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노(做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와 박(박근혜 대통령)의 남자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의 한판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여기에 무소속 구희승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누구의 확고한 우세를 점칠 수 없는 혼전 양상이 펼쳐질 전망이다.

6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순천·곡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 결과, 서갑원 후보가 269표(57.35%)를 획득, 186표(39.65%)를 확보하는데 그친 노관규 후보를 83표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막판 경선에 합류한 고재경 후보는 14표(2.98%)를 얻는데 그쳤다.

이날 경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선호투표제의 백미인 2차 투표는 서갑원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당초 경선은 서갑원 후보와 노관규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이를 반영하듯, 비가 오는데도 전체 선거인단(700명) 가운데 484명이 참여, 69.14%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일부 선거인단은 지지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투표 결과, 서갑원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과반 이상을 득표, 비교적 여유 있게 노관규 후보를 제쳤다. 이는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선 것이 전체적인 경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의 남자’에 맞서 ‘노의 남자’인 서갑원 후보가 강력한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민심의 흐름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 후보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무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관규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도 통합진보당의 김선동 후보에 패배했다는 점이 경선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 것으로

빛속에도 선거인단 69% 참여 열기

정견발표·토론중 후보자 연호 긴장

이정현·이성수·구희승과 4자 구도

분석되고 있다. 고재경 후보는 젊은 패기를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으나 전체 판을 흔들지는 못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서갑원 후보는 “불통정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을 되찾도록 하겠다”며 “이정현 후보는 청와대 있을 때나 잘하지 지금 와서 예산 폭탄 운운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후보는 이어 “곡성과 순천이 전국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가면 예산확보와 함께 호남의 인제가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순천·곡성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갑원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 통합진보당의 이성수 후보, 무소속의 구희승 후보 등 4자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하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전남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혼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고향인 곡성을 기반으로 순천 민심을 흔들 전망이며 무소속 구희승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바닥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도 산단을 중심으로 한 고정 지지층을 바탕으로 최소한 두 자릿 수 이상의 득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혼전 구도속에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어느정도 지지세를 확산해 나갈 것인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일 오후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선거인단 48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순천·곡성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3명의 후보자들이 연설 준비를 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 광산을 ‘권은희 카드’ 급부상

새정치 전략공천 ‘제3 인물’... 권 前과장 지인 “내정 통보 출마 결심”

천정배 前 장관 “광주 떠나지 않을 것”... 무소속 출마 가능성 시사

7·30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3의 인물’ 전략공천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에서 전략공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여부와 전략공천을 받을 ‘제3의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경선을 통해 광산을 보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고 경선 후보 면접까지 마친 상태에서 광산을 경선 후보인 가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광산을 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천 전 장관을 포함해 경선에 응모했던 후보들은 전략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물색 중이다.

이 가운데 천 전 장관은 “광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기존 경선 후보로 등록했던 김명진·이근우 측 지지자와 일부 지역 주민의 전략공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비해 천 장관에 필적할 수 있는 인물들의 경쟁력을 살펴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본인들의 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위원 광산구 더불어라 노인복지관장,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의 경쟁력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윗선의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과장 카드

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대표가 메시지를 통해 영입을 타진했고, 애초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과장은 “권 전 과장의 전략공천이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권 전 과장은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권 전 과장 공천을 요구하는 성명을 당 대표실에 전달했다.

이에 천 전 장관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자신을 경선 후보에서 배제하고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무소속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천 전 장관은 “중당당이 경선을 통해 광주 광산을 보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공표 한 뒤 경선 후보로 응모했다”며 “도덕적·정치적 하자가 없는 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경선에서 배제한다면 솔직히 무소속 출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면서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천정배-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대결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당의 전략공천 방침으로 인해 천 전 장관에 일부 비판적인 여론의 초점이 새정치연합 지도부로 옮겨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지도부는 천 전 장관을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천 전 장관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으로 보여 광산을 선거가 주목받게 됐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이석형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김연관 예비후보 사퇴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100% 국민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김연관, 이개호, 이석형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론조사식 선호투표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경선시행체제 상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했다.

여론조사는 8일 이개호·이석형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우선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는 광주지역 자산1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에만 남구문내 다문화가정 자녀, 성적우수학생 및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94명에게 총 2,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사랑의 종도리 쌀 20kg 500가마를 지원, 관내 혼자사는 어르신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100개를 전달하는 등 수익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013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금고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2014년 3월에 받은 정부합동감사(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실시로 건전성을 인정받았다.



본 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